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교회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무덤으로부터 구하셔서 새로 난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회중)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시고, 뜨거운 열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순교자와 성인들의 정신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세계로 파송하셔서 능력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어 주님 뜻대로 빛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탁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성령6/ “아빠라 부르는 밤” / 을 2:28-32; 롬 8:14-17; 요15:26-16:3 >

✠ 교회소식 ✠

☐ 예배

일상 속 작은 친절이라는 징검다리

따뜻한 차 한 잔, 진심 어린 안부 인사 한마디가 얼어붙은 영혼을 녹입니다. 거창한 신학의 말보다 일상 속의 작은 섬김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성령강림절 시리즈설교 “성령, 내 안에 시작된 새로운 세상”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5월24일	내 안의 거룩한 침입	겔 36:25-27	고전 2:10-12	요14:16-18
5월31일	사랑하기에 아프게 찌르시다	속 12:10-13	살전 1:4-8	요16:7-11
6월 7일	가면을 벗은 영혼의 계절	사 32:15-18	갈 5:16-23	마 7:16-20
6월14일	길 잃은 세대를 위한 나침반	느 9:19-24	엡 1:17-20	요16:12-15
6월21일	질그릇들의 오케스트라	출 31:1-6	고전12:4-11	눅 22:24-27
6월28일	아빠라 부르는 밤	을 2:28-32	롬 8:14-17	요15:26-16:3

☐ 성령강림 후 넷째주일 성찬식 : 21일(오늘) 1·2·3부 예배시

☐ 새가족교육 제4강 : 21일(오늘) 12시 40분, 회의실 "안동교회의 역사"(이중서 장로)

☐ 모임

- 한빛 여전도회 월례회 : 21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한길 여전도회 월례회 : 21일(오늘) 2부 예배 후, 영아유치부실
- 한누리 남선교회 월례회 : 21일(오늘) 2부 예배 후, 남선교회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25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일대일제자훈련양육자기도회 : 26일(금) 오전 10시 30분, 남선교회실
- 시무권사 온라인 기도회 : 26일(금) 오후 7시 30분

☐ 남녀선교회 연합 영성회복모임 : 28일(주) 오후 1시, 친교실

- 내용 : 신앙 간증(이규일 집사) 및 기도회
- 대상 : 모든 성도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대상 :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균형 잡힌 이해를 원하는 성도
- 문의 : 길석현 권사

☐ 요양원 일제심방 :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이 빠짐없이 심방을 받으시도록 가족들과 구역에서 도와 주세요. 가능하신 날짜를 구역장이나 교역자님께 알려 주세요.

☐ 소허당 전시 : 김은실 개인전, 28일(주)까지

☐ 식당봉사

- 21일(주) : 전봉순 조성아 / 이성희 임재호
- 28일(주) : 강승희 유란임 / 윤성진 허재우

1부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질그릇들의 오케스트라”

고린도전서 12:4-11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비교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저울질하며 '교만'과 '열등감'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비교의 병리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은사(Gift)를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훈장'이나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으로 오해할 때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그러나 은사의 헬라어인 '카리스마(χάρισμα)'는 '은혜(Charis)'에서 나온 단어로, 오직 거저 주신 선물이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은 나를 돌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함(섬페른, συμφέρον)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듯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소리로 천국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질그릇들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신뢰하며, 내 은사로 연약한 형제의 빈틈을 메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지체로 일어섭시다.

소그룹 나눔 질문

- [비교와 고립]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 재능, 배경 등과 나를 비교하다가 우월감(교만)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괴감(열등감)에 빠져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고립주의)시켰던 경험이 있다면 정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 [복음과 적용]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원리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을까? 오케스트라의 트라이앵글 연주자처럼,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내게 주신 작은 은사(재능, 시간, 기도의 마음 등)’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강림절 후 넷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마10:39)

(목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4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담대한 혀와 열린 귀와 새 신앙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뉘 두었으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심한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으로 채워 주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10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1:1-6(130) 한미진 권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12:4-11(277) 한미진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씬 목 상 > “어저께나 오늘이나”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2:24-27(135) 이성희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질그릇들의 오케스트라』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이성희 안수집사

찬 송 220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